

완도 발전 이끌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인구일자리 정책 등 내달 2일까지

완도군은 다음달 2일까지 '2023년 완도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완도군의 현안, 역점·미래 사업 등에 국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소통·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크게 군의 핵심 사업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일자리 정책, 미래 발전 정책,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등으로 군 발전에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공모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국민 참여 누리집인 국민신문고(<https://epeople.go.kr>)

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응모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담당 부서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8월 중 우수 제안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은 등급을 결정해 금상(70만 원), 은상(50만 원), 동상(30만 원), 장려상(15만 원), 노력상(10만 원) 등 상당 기념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단,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완도=이두식 기자

영암 'Made in 월출산' 수제 맥주 나온다

(유)무등산브루어리와 업무협약... 연말까지 레시피 2종 개발·용기 제작

영암군은 (유)무등산브루어리(대표 윤현석)와 최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 맥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월출산 브랜드 수제 맥주 개발·교육·홍보·마케팅, 양조장 사업추진 등에 협력한다는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농가-상인-청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협약식 이후 영암 수제 맥주 시제품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여기서는 올해 연말까지 영암의 특산물을 활용한 '영암 수제



영암군과 (유)무등산브루어리가 함께하는 영암 수제맥주 제조 업무협약 체결. 이날 협약은 두 기관이 월출산 브랜드 수제 맥주 개발·교육·홍보·마케팅, 양조장 사업추진 등에 협력한다는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농가-상인-청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협약식 이후 영암 수제 맥주 시제품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여기서는 올해 연말까지 영암의 특산물을 활용한 '영암 수제 맥주' 레시피 2종을 개발하고, 제품 용기 제작도 마치고 있다. 영암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비교우위

물을 재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수제 맥주의 생산부터 마케팅 전반에 걸친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생산설비 구축과 제품 생산에 들어가 영암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수제 맥주 제조 교육으로 인력을 양성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양조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우수한 농산물, 역사와 문화에서 길어올린 감성 등을 온전히 담은 수제 맥주 생산·판매·소비 시스템을 구축해 관광객에게는 낭만을, 농가에는 소득을,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목포,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306억원 투입

목포시의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목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대양산단 내에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선 8기 핵심공약 사항인 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60억원을 비롯해 3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 894㎡ 규모로 건설된다. 이 곳에는 청년 인큐베이팅 플랫폼 등에서 양성되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지원할 기업 입주 공간과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사업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요투자심사 통과돼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다. 목포시는 내년 설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시설설계 용역을 거친 후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오는 2028년 센터가 건립되면 목포시의 강점인 로컬관광과 수산자원, 식품가공, 미래첨단해양 등 관련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최첨단 산업이 중심인 최고의 도시로 성장시켜 청년과 함께하는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진도, 공약사항 순조롭게 추진... 공약이행률 30%

100개 공약사업 중 30건 완료, 70건 정상 추진

민선 8기 진도군의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상반기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공약사업 추진 현황 점검, 문제점 분석,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희수 진도군수 주재로 공약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재 김 군수의 공약은 아리랑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등 70건의 사업

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공약 이행률은 30%를 보이고 있다. 김 군수는 "행정 절차 이행, 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전남남도,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약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군민들과의 약속이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배섬 진도군 발

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군의 민선 8기 공약은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핵심 기조로 ▲다함께 잘사는 산업 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혁신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혁신 ▲찾아서 머무는 관광 혁신 ▲군민을 섬기는 행정 혁신 등 5대 목표 아래 100개 사업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수산분야 예산 30% 편성, 전지역 학생 100원 버스 실현,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등 총 30건의 사업을 완료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강진, 팀장급 HACCP 교육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30명 모집

강진군은 오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강진군민 30명에게 '팀장급 HACCP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썬(HACCP)'이란 식품 원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식품 관련 업종에서 근무할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해썬 교육은 팀원 및 기타 종업원 교육과 팀장 교육으로 구분되며, 일반 근로자가 아닌 해썬 관리자 또는 식품 관리자로 구직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팀장급 해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료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필수 과정을 포함한 기본, 실무, 심화 단계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시험을 치른 후 출석률과 점수를 합해, 해당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은 강진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물론 식품위생 관련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7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강진원 군수는 "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해남,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

해남군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해남군을 포함해 올해 총 1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해남군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과 다양한 공모사

업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6월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책임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갖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가치 구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신안천일염 품귀 아니에요, 천천히 사세요"

신안천일염 생산자연합회, 소비자 걱정 당부... 7월 본격 출하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이철순 회장은 18일 "최근 가격상승으로 연일 천일염이 품귀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신안천일염이 역시 최고'라는 반증이다. 열심히 따 흘리며 일한 보람을 느끼지만 천일염 생산자 입장에서는 급증하는 가격상승은 바라지 않는다"라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안타까워했다. 신안군에서는 매년 23만톤 가량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80% 차지한다. 생산되는 천일염의 약 35%는 판매 농협을 통해 유통하고 있으며 2023년산 천일염 매출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농협에서 현재까지는 품질관리를 위해 간수가 제거된 2021년산, 2022년산 남은 재고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주문 폭주와 물류사의 사정 등으로 7월까지 포화 상태이다. 또한, 일부 농협에서는 양과·마늘 수매 일정과 겹쳐서 천일염 출하업무를 못하고 있으며, 연일 계속되는 '천일염 품귀현상' 언론보도로 천일염 주문량이 급증하는 등 농협 고유업무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비금농협조합장(최승영)은 "6월 현재 판매되는 천일염은 2년 간수가 빠

진 것으로 20kg 1포대당 3만3000원(택배비 포함)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2021년에 2만1000원에 매입해 간수제거를 통한 15% 감량·재포장·창고보관 등을 통한 것으로 택배비 6000원을 제외하면 적정가격을 책정한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2023년산 햇소금을 본격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그때까지는 판매가격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에서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는 4~5월에 잦은 강우로 생산량이 일부 감소했으나, 6월부터는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예년 수준으로 회복, 7월부터는 본격적인 출하를 예정하고 있다. /신안=박정래 기자

건강의섬 완도

청정완도로 전복

먹으러 갈래?

완도군 전복 홍보대사 영탁